

제주 골프장산업의 미래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영근

현시점에서 제주지역 골프장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관광수지 악화는 물론 골프장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골프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1. 시작하면서

제주는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제치고 정상에 오른 바람의 아들 양용은이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골프스타가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온화한 기후와 명품 골프장 등 골프천국이라고 단언해도 될 만큼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골프장 건설 증가, 다양한 레저활동으로 인한 골프수요 분산 등 2010년도 들어 증가세에 있던 도내 골프이용객이 처음으로 감소되었음에도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레저의 다변화, 동절기 기상악화(폭설)로 휴장일이 많아져 도내 골프장들이 경영악화에 따른 골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시점에서 제주지역 골프장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관광수지 악화는 물론 골프장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골프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골프장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골프장산업의 현황

1) 일반현황

(1) 세계 골프장 현황

전 세계에는 2008년말 기준 3만 5천 112개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골프장 전체 면적은 쿠웨이트 국토 크기에 해당되고, 남한면적의 17% 수준인 1만7천238km²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골프장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7,672개소), 영국(2,752개소), 일본(2,442개소) 등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고, OECD 가맹국(31개국)을 선진국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의 골프장 수는 3만 1,780개로 전 세계 골프장 수의 90%에 해당된다. 선진국 중 인구당 골프장 수가 많은 나라로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이 있고, 국토면적당 골프장 수가 많은 나라로는 영국,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한국 등이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에 이어 베트남(가까운 장래에 골프장 수가 1,0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 중국(2010년 500여개의 골프장, 향후 5년간 1,000여개의 골프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골프장 개발의 붐이 일고 있다.

(2) 국내 골프장 현황

국내 골프장은 2010년 기준 382개소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시도별 전국 골프장 현황

(단위 : 개소, 개, %)

구분	2010년		2009년		증감율(%)	
	골프장수(개소)	홀수(개)	골프장수(개소)	홀수(개)	골프장수(개소)	홀수(개)
강원	41	715	38	661	7.9	8.2
경기	132	2,577	122	2,391	8.2	7.8
경북	42	734	37	656	13.5	11.9
경남	34	694	27	558	25.9	24.4
충북	28	513	22	405	27.3	26.7
충남	20	339	15	270	33.3	25.6
전북	17	266	14	238	21.4	11.8
전남	28	522	25	477	12.0	9.4
제주	40	681	39	681	2.6	0.0
합계	382	7,041	339	6,337	12.7	11.1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11)

우리나라 전국 골프장 이용객 수는 2010년 기준 25,725,404명으로 전년대비 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홀 당 이용객 수는 2010년 기준 3,654명으로 전년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11).

(3) 도내 골프장 현황

제주지역 골프장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중인 골프장은 오라CC를 비롯하여 28개소(2011년 2월 기준), 승인받은 골프장이 3개소, 철차이행중인 골프장이 3개소 등이 있다.

도내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표 2>와 같이 1,557천명이 이용하였는데 이중 도외인이 946천명, 도내인이 611천명으로 나타났고, 각 골프장별 평균 이용객 수는 34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도내 골프장 이용객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

구 분	2004년 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개소 수(A)	12	16	19	23	26	27	28
이용객수	합계	848	977	1,017	1,188	1,443	1,605
	도외인(B)	554	657	647	719	911	1,001
	도내인	294	320	370	469	532	604
평균이용객(B/A)	46	41	34	31	35	37	34
연도별 관광객(C)	4,110	5,020	5,312	5,429	5,822	6,523	7,560
골프이용객 비율(B/C)	13	13	12	13	16	15	1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1)

(4) 지역별 골프장 이용요금 현황(2011년 2월 기준)

골프장 이용요금 1인당 부담액을 보면 <표 3>과 같이 수도권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권은 호남권과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권의 골프장 1인당 부담액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제주권이 주중 22,850원, 주말 29,650원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국 골프장 요금 현황

(단위 : 원)

지역별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1인당 부담액	
	주 중	주 말			주 중	주 말
수도권	176,000	220,000	23,750 (95,000)	20,000 (80,000)	219,750	263,750
충청권	135,000	164,000	23,000 (92,000)	19,250 (77,000)	177,250	206,250
강원권	116,000	161,000	22,750 (91,000)	18,750 (75,000)	157,500	202,500
영남권	113,000	151,000	22,500 (90,000)	18,250 (73,000)	153,750	191,750
호남권	86,000	134,000	22,250 (89,000)	17,750 (71,000)	126,000	174,000
평균	125,200	166,000	22,850 (91,400)	18,800 (75,200)	166,850	207,650
제주권	105,000	139,000	23,500 (94,000)	15,500 (62,000)	144,000	178,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1)

※ 세계 주요도시 그린피 현황

국내 그린피(비회원 주말요금 기준)는 세계 최고수준(중과세 완화시 중간수준 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세계 주요도시 그린피 비교

(단위 : 달러)

구분	도쿄	뉴욕	LA	베이징	홍콩	방콕	파리	서울
계	216	75	42	130	195	109	101	271
그린피	165	60	30	90	150	70	81	226
캐디피	34	-	-	20	25	14	-	24
카트피	17	15	12	20	20	25	20	21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11) ※ 비회원 주말요금 기준

(5) 국내 골프인구 현황

우리나라 골프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2007년 기준) 수도권이 1백4십6만8천명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영남권이 5십7만6천명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제주도는 1만8천2백명으로 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09).

(6) 골프 증과세 현황

골프는 도박산업을 포함한 국내 모든 분야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을 부과<표 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골프 세금은 세계 최고(골프 선진국은 물론 그 어떤 신흥국가보다 비쌌) 수준<표 6>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11).

<표 5> 골프관련 세금 국내 비교

구분		골프(장)	골프제외 스포츠	도박시설	유흥시설	비고
국세	개별소비세	21,120원	없음	카지노(5천원), 경마(880원), 경륜·정(350원)	룸싸롱 : 10%, 기타유흥시설: 없음	소비자
	종합부동산세	2% (종합합산)	0.5~0.7% (별도합산)	없음	없음	원형지
지방세	재산세	4%	0.07~0.5%	4%	4%	개발지
	취득세	10%	2%	10%	10%	취득자
체육진흥기금		3,000원	없음	없음	없음	소비자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11)

<표 6> 골프관련 세금 국제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증과세부과	취득세: 5배증과	일반과세	일반과세	일반과세
	재산세: 4%, 20배증과			
	중부세: 2% 종합합산(10배증과)			
개별소비세	21,120원	입장세: 400~1,200엔	없음	없음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없음	없음	없음
세금총계 (1회 라운드당)	75,000원	20,000원이하	10,000원이하	10,000원이하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11)

* 세금총계는 전국 골프장 평균치이며 세금총계대비 입장객수로 나눈 수치임

2) 골프장산업의 손익현황[GMI 골프그룹 보도자료(2011.4.12) 인용]

현재 운영 중인 전국골프장 382개소(2010년 기준) 중에서 105(약 27%)개소를 대상으로 2010년도 손익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8홀 골프장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2009년 21%에서 2010년 15%로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7홀인 경우 3%, 36홀인 경우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전체 이용객은 전년대비 약 0.7% 감소하였지만 매출액은 8% 감소. 이는 지난해의 이상 기후와 천안함 등 사회불안, 이용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의 결과인 그린피 할인제가 전국적으로 파급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 골프장이 10.0%P 감소했고, 충청권은 9.0%P, 호남권은 7.7%P 하락, 또한 적자를 기록한 회원제 골프장은 지난해 33개로 2009년 15개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제주도내 골프장(27홀 4곳, 36홀 3곳) 평균매출액을 <표 7>과 같이 살펴보면 27홀인 경우 2009년 68억 1400만원에서 2010년 63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인 4억 5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36홀인 경우 2009년 128억 6600만원에서 2010년 120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인 8억 2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도내 골프장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국 골프장 평균매출액

[분석대상 : 105개(18,27,36홀) 골프장 (단위 : 백만원)]

구 분		강원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평균	제주도
18홀	2010년	7,899	11,013	9,894	10,531	7,013	9,270	
	2009년	8,872	11,971	10,741	10,678	8,015	10,055	
	전년대비	-973	-958	-848	-147	-1,002	-785	
		-11%	-8%	-8%	-1%	-12%	-8%	
27홀	2010년	21,138	14,015	13,128	12,526	13,775	14,917	6,364
	2009년	19,994	15,106	13,704	13,212	14,998	15,403	6,814
	전년대비	1,144	-1,091	-576	-686	-1,223	-486	-450
		6%	-7%	-4%	-5%	-8%	-3%	-7%
36홀	2010년		21,547	18,146		27,183	22,292	12,064
	2009년		22,833	19,012		28,024	23,290	12,866
	전년대비		-1,286	-866		-841	-998	-802
			-6%	-5%		-3%	-4%	-6%

자료 : GMI골프그룹(2011)

*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는 평균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 도내 골프장산업의 문제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2010년도 들어 증가세에 있던 도내 골프이용객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골프장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최근 골프장들의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과제, 즉 7개 분야 17개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자료(2011.5.17.)〈표 8〉와 제주지역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09)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내 골프장산업의 문제점

첫째, 이용객 감소 및 골프장수 증가 등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경영악화이다. 2010년 이용객 수는 1,557천명으로 전년 대비 47천명(3.0% 감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 수는 2004년까지 12개소에서 2010년 28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매출액도 27홀 7%, 36홀 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가격경쟁력 약화이다. 골프장 이용요금 1인당 부담액을 보면 제주권은 호남권과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주말은 호남권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입회금 반환문제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금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입회금 반환이 도래하는 골프장수가 39개소, 입회금 반환금액은 2조 9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5년 분양한 골프장들의 입회금 반환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권이 39.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영남권 32.8%로 나타나, 제주 및 영남권 회원제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청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항공권 난이 가중(접근성 제고)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골프관광객들은 성수기의 항공예약과 관련하여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외 직항노선이 한정되어 있어 해외 관광객의 유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개별소비세 영구면제 문제이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를 비롯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해남 등 6개 도시)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제(21,120원)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된 상태로 매우 비관적인 상태이다.

끝으로, 신규 골프인구 창출에 따른 유인력 부재와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2) 도내 골프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제주발전연구원, 2009)

골프관광객의 유치 확대와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내 골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골프인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한다.

첫째,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이다. 골프비용 인하, 고객 맞춤형 요금제도 도입과 운영시스템 변

경, 서비스 차별화 및 골프관광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 개발, 골프장 운영의 혁신(캐디선택제 도입 등), 여성(청소년, 시니어 포함)골퍼 유치로 골프장 이용률 제고와 날씨문제로 라운딩이 불가능할 시 상응하는 기회비용 제공 등 대체활동 다양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골프인구 확대이다. 신규 골프인구 창출 방안 모색, 즉 골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요금 인하와 동시에 비수기나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청소년, 고령층, 여성 등 신규 골퍼들에게 할애하는 배려가 필요하고 새로운 골프인구 저변확대 방안으로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이다. 우리나라의 골프 지도자를 비롯한 각종 지도자의 자격 제도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 지도자와 국민스포츠를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 이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함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 골프아카데미 창설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다. 골프장을 방문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마케팅(CRM)은 물론 다양한 골프대회 유치로 홍보 극대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 지역단위 공동마케팅 전략 수립·추진, 외국인 골프관광객 특히, 중국골프관광객 유치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접근성 제고이다. 제주공항의 증축과 함께 국제공항에 걸맞는 신공항을 건설하여 해외직항 노선 확대와 항공요금 인하 및 좌석 확보, 또한 선박항로 확대 등의 대책만이 아니라 도내 골프장업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셔틀버스 공동운행 등도 필요하다.

여섯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입회금제도의 개선이다. 회원권 반환의무만 있는 우리나라의 회원권 제도도 대부분의 미국, 중국의 골프장처럼 회원권 반환의무가 없는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사실상 주식 거래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일곱째, 개별소비세 영구 면제이다. 제주도인 경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즉 2002년 4월 20일부터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오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일몰제에 포함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끝으로, 골프장의 지역사회 개방으로 지역밀착형 경영 추진과 저렴한 골프장비 보급, 골프관련 통계 자료의 대폭 정비 등이 필요하다.

〈표 8〉 7개 분야 17개 과제

분 야	세 부 추 진 과 제
1. 세제혜택 지원 분야	1)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재연장 및 영구 면제
	2) 재산세 등 세제인하
	3)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등
2. 통합 홍보 관련 분야	4) 제주골프 캐릭터 개발
	5) 홍보매체를 통한 제주골프 광고(골프채널, 골프잡지 등)
	6) 골프장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자료 업그레이드

3. 접근성 보완 분야	7) 항공요금 인하 및 좌석확보 방안
	8) 선박항로 확대방안
4. 다양한 골프 이벤트 진행	9) 골프천국 제주 홍보를 위한 골프페스티벌 행사개최
5. 대회 유치 분야	10) 각종 국내·외 프로대회 유치
	11) 기존 대회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상설 아마추어대회 개최 필요
6. 중국마케팅 지원 분야	12) 도내 골프장의 중국마케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지정 또는 신설과 예산 지원 필요
7. 운영 관련 분야	13) 캐디 수급문제 해소
	14) 골프장 운송체계 개선
	15) 야간조명금지 완화
	16) 골프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캐디 운영방안
	17) 명예도민에 대한 도민할인 추가확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1)

4. 마치면서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도내 골프장의 공급 초과현상으로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의 증가, 국내 골프장 건설의 확대 등 골프관광객의 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골프장산업은 관광레저스포츠산업을 주도할 고부가가치산업임에 틀림없다. 도내 골프장산업이 제주의 발전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2000년 중반 이전의 공급자중심시장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골프업계 관계자와 골프주체들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현실 속에서 골프장산업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워낼 것인가 하는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비가 내리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